

## 복음과 치유

새해에는 정말 복 받으시다. 영 육간에 큰 전도와 축복을 주실 줄 믿는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치유이다. 내일 와서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치유는 아주 중심되는 단어이다.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것이 치유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가게 된 것도 치유이고 이런 저런 응답 등 통틀어서 이야기 하면 인생을 치유 받는 것이다. 사실 예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 믿고 치유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에 딱 누리는 사람들은 아주 표나게 치유 받는다. 틀림없다.

### 1. 전도하는 교회

먼저 우리는 전도 하는 교회가 되어 할 것이다. 몇가지 주신 단어들이 있는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교회에 주신 4가지 기도제목

- 조직 전도- 사도행전과 같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1:1전도도 귀하지만 절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 렘넌트 운동의 구체화- 내년에는 렘넌트 강사를 청빙해서 우리 교회 자체 안에 렘넌트 집중훈련을 하려고 한다.
- 경제 -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경제를 주셔야 한다. 동네 전도 하는데는 돈이 필요 없겠다. 우리 입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나 크게 하려고 생각하면 경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엔세나다에 학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파송해서 엘리트를 모집하는 것이다. 마음에 담고 기도 하면 응답 하실 것이다. 산업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중에 문을 많이 열어주실 것이다.
- 지속적인 훈련 -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훈련의 방향이 집중 신학원 중심이었는데 내년에는 5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으로 전향하려고 한다. 전도가 조직화 된다는 것은 5가지가 현장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결국 전도까지 연결이 안 되면 중간에 번질되거나 중단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출발한다. 전도, 선교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이 기도 비밀이다. 여기까지만 가고 안 간다면 썩고 만다. 그리스도 누리면 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그리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을 두고 전도 하는 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본론

#### 1. 그리스도- 근본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딴것냐마는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근본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전도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기도를 누리는 비밀이 꼭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큰 전도, 지속적으로 누리는 전도가 절대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어도 내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 내게 기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 구체화 되지 않는다. 안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다음 문제가 오면 또 그것을 위해 해야 하고...

물론 해야 하지만 기도에 답이 난 사람은 이것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듯 기도하지 않는다. 이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다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빨리 해야겠다는 바쁜 마음이 안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쌓여가게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제목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야말로 도구, 즉 껍데기인 것이다. 가치 없단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이다. 보통 내가 가진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못하면 안될까 불안해한다. 아직 쌓여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문제 오는 것이 겁나고 문제 대해 또 다른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힘에서...그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지향한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것은 1차 적인 기도이지 근본 기도는 아니다. 사실 지나가다 한번씩 하는 기도에 불과하다. 그런 기도는 안해도 괜찮을 만큼 근본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가다 한번씩 내가 필요한 것을 말 할 수 있는 것. 너는 본래 이런걸 구할 자가 아니지~ 하신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치유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 끝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증거 온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계 없다.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뭘해도 괜찮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만 있으면 된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나의 기도가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물론 급할 때 하기도 하지만 우선 먼저 근본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기도, 이것 되어야 한다. 그러면 눈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진다. 평소 생각하는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게 발전되어 나중에 24시 기도가 되는 것,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 하나로 끝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9:30, 이렇게 되면 복음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복음 하나로 끝!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하시고 지속이 된다.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문제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더라도 상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앞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문제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존재이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전도를 나가는데 나 혼자이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서 어떤 훌레스에게 복음을 전달하였다. 근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더라. 말이 안될 정도로... 그래서 핵심 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 하면서 영적 기도만 두 번을 시켰다. 나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더니 많이 가라앉았다. 우리 훌레스

중에는 어쩔 때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에게 영접 후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던 좀 편하다고 하더라. 에너지, 하나님 오만 소리 다하다가 결국 영접을 하였는데 좀 안타까웠다.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여 치유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였다. 영접 후 좀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렇게 돌아서 정신병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영접을 진짜 했다면 지옥은 안 갈테니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어쩌다 연말이 되면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 영화 보다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싶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히 제 경우는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나를 속이던 흑암이 하나하나 물러가던 흑암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의 소통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입으로만 했었다. 내년에는 좀 헌신하는 분들이 모였음 좋겠다. 주일 날 다 마치고 나면 좀 힘들지 않나? 나도 힘들다.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처음 1년이 굉장히 힘들었다. 한 번씩 하나님께 하던 말이 있었다. 그 때도 저는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저런 부족하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 내가 안 전하면?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른다.

생각을 해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끌려 가는데 오늘 나는 집에 앉아 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웬년부터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종교등부 한번씩 모여서 하고 그러더니 다시 수그러 들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데이빗 디슨 만날 때마다 이야기 한다. 형님노릇 잘하라! 친구들 잘 이끌어서 네 것도 잘 하고 복음 전하라고... 이걸 위해서 방향을 딱 잡아야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더 축복할 것을 믿는다.

## 2. 내년 중점 사항

제일 먼저 큰 방향은 본부와 함께이다. 이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내일 와서 메시지 들으면 알겠지만 1강이 치유 전문 집중학교, 2강이 summit 전문 집중 학교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치유와 서밋이다.

이번에 왔던 집중 신학원 강사 중 한 분이 마침표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성취되기에는 시간표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이 언약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치유학교와 summit학교 하는데 여하튼 마침표! 내년에는 한다! 여러분도 메시지 하는 중에 나오는 단어들에 마침표를 찍어라. 왜?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믿음이다. 마침표!

교회 내부적으로는 조금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치유에 관한 모임이나 활동이 조금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민족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다민족 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다. 이것 아는 것까지 상당한 세월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거 알고 나서 그 다음 할 것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누리는 세계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볼 때 다민족과 일단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다.

그 다음이 선교이다. 선교는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오늘 이인기 목사님 오셨는데 메시지 후에 간단히 인사도 하실 것이다. 리카르도 목사님 등을 통해 중요한 문이 많이 열렸는데 내년에는 장로교 쪽에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이인기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와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만일 전문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문이 열릴 것이고 판도가 더 달라질 것이다.

선교는 복음 전달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비밀만 전달 해 버리면 자기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체현한 분들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복음을 딱 바로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 스스로 치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씩 갈때는 다시 확인하고 본부 방향 전달하고 성경 가르쳐서 제자가 되고.. 제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을 진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나 유치원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때 돈이 좀 필요할 것이다.

김종호 선교사님 또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광에 앞으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선정화 집사님 부부가 갔는데 연말에 작문의 카톡이 왔다. 거기 원주민들의 삶이나 생활 형편, 문화들을 좀 기록했는데 소설 읽는 것 같았다. 아주 열악하더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선교 안하면 망하고 썩어버린다. 그 다음 내년에는 훈련의 방향, 5기초 중심으로 할 것이다.

## 3. 하나님의 소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마음이 상한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하는게 아니라 복음 들어가면 다 된다. 이 복음을 우리가 내년에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사람을 살리고 풀어주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억지로 하는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일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계속 그 누림의 비밀이 깊어지는 것, 응답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게 된다. 내 주위의 사람도 변하고... 자꾸만 영역이 넓어지고 정복하는 것.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그리스도, 일 아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경험에 그리스도 누림이 약하고 부족할 것이다. 일이 절대 아니다. 축복! 나는 못해. 연습해야 한다. 눈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

류육사님은 키도 조그마하신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걸까? 세계를 막 돌아다닌다. 그래도 피곤하지도 않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려움이 다 있다. 제가 자주 말씀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누리기 시작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다. 몇 개월 되었는데 얼마나 오래갈지는 모르겠다. 시편 18:1 내게 힘을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부터는 하루에 서른 몇 번까지도 이 구절을 고백한다. 내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고백한다. 기도 별로 안 한다. 이게 내 기도이다. 그런데 힘이 난다. 그 힘이 난 이후부터 알게 되었다. 어느날 깨달은 것이다. 맞아. 그 때 힘 달라고

기도했었잖아.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까? 이 말씀을 예전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도 아니었는데 왜?

말씀이 힘인 것이다. 말씀은 영적인 힘이고 육신적인 힘은 운동인가? 말씀이 영적 육신적 모든 힘이다. 틀림 없다.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거기에 이런식으로 내게 전에는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 그 때 이 부분에서 계속 깊어진다.

제가 개인 기도에 신경을 안 쓰지가 4년쯤 되어간다. 그 전에는 개인 기도가 곧 내 기도였다. 안 하면 힘들어서 못 사니까. 그보다도 내 마음이 편해서... 근데 지금은 안해도 괜찮다. 그건 본래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었다. 한다고 해서 나쁜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언약을 놓아버린다면 그건 종교다. 저는 이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산다.

언약 기도 쓸 때 보면 제일 위에 기도제목이 있는데 20가지 정도 된다. 그 기도제목이 딱 있는데 그것을 그 때 쓰고.. 하루 종일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나면 안 한다. 나도 24시 이것을 계속 누려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표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끝내는 것이다. 그럼 나도 거기서 끝내야 하고 꼭 내가 개인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4시를 해도 이것을 24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명무패이다. 천명이 패하겠는가? 아무도 못 이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나?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삶을 누가 막겠나? 그게 우리의 최고 목표이다.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근본 목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 이것으로 끝이다. 너는 이것으로 살아라! 그게 신자이다. 너는 이렇게 부름 받았어. 이것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왜 네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경제! 진짜 기도하라. 그리고 지속하고 있으면 동기가 사라진다. 이것이 없어지면 참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2018년은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진짜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영적인 고백하나로 끝내버리는 것이다. 구질구질하게 이것저것 맞추는게 아니라 나 혼자서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 그게 믿음이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다.

4. 확인할 것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평범하기도 하고 매일 듣는 말이지만 정말 무궁무진하나 말이다. 농담 삼아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 마음에 부르기도 하고... 그 때 어느정도 영권이 나타나는가? 이게 얼마만큼 내 안에 확인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혼자서 그리스도 외칠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 그게 자기 그리스도이다. 항상 이것이 근본 되고 진짜 누려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흑암 세력이 순간적으로 달라진다.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할 때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많은 증거들이 사실 필요한데, 이 증거들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다른 걸 고백해서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답 날 자리는 그리스도이다. 오늘도 그래서 다른 것 버리고 다른 길로 안가는 것. 다른 길은 근본 답이 아니라 잠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은 충분하다! 이것이 확인 되는 2018되기 바란다. 복음 하나로 끝을 내라. 인생 모든 것을 끝내시라.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본부 1부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나왔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신적 사람이 되거나 육신적 사람과 영적인 사람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늘 같을한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내가 24시간 육신적인 일만 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답 나와 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신앙 고백을 말 하는 것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도록 발목 잡고 늘어진다. 이것 안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응답이 공짜로 온다. 승리하게 되는 것. 성경에 오는 응답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어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진짜 끝나는 것,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거나 발목잡혀 있다. 어느때는 하나님께 와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평생! 믿기는 믿어도 늘 그 자리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건너오는가?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는 가장 결정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는 늘 사단에게 속을 뿐이다. 내가 늘 힘쓰고 애써도 여전히 사단은 발목 잡고 있다. 전도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 기도도 답이 아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답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 여기에서 해방되면 더 큰 영권 더 큰 자유, 더 큰 증거, 더 깊은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나올 것이다.

어느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어있고 사단은 박살이 나게 되어있다. 틀림없이 박살이 난다. 그 때가 분명히 온다. 내 경험으로 보면 그 답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를 내가 부족한 중에도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 때가 오면... 끝나버린다.

결론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야기 했지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근본이 되기를 바란다. 내 인생 모든 것에 근본, 출발이 항상 여기여야 한다. 모든 가치 기준이 이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다른 것에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하고싶지도 않다. 그러나 이것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거기로 가고 싶어진다. 내 인생의 거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쓴다면 다 종교이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 진짜인가? 정말 이것이면 되는가? 내 생각에 금식은 이런 때 하는게 아닌가 싶다. 정말 답 주시라고...

모든 언약에 대해 마침표! 이유는 내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해 내가 토를 달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 성탄절 때 메시지가 이사야 7장이었다. 아하스왕은 안 믿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했다. 그래도 응답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약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래저래 생각해서 되겠냐 안되겠냐 하는 건 인본주의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 네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해라. 그래서 마침표! 나는 모르겠고! 그냥

마침표.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아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기도제목에 관심이 늘 가 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요약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눈이 통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꾸 기도제목에 마음을 쏟는다면 속는 것이다. 진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바란다. 답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게 아니다. 이를 악 물면 이빨만 부러진다. 조용한 중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분명히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 하며 오는 중에 우리 중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 정말 감사하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중에는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분명히 증거를 딱 주실 것이다. 틀림 없다. 은혜 받기를 바란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 자녀들에게 최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